

109. 예수님께서 회복, 의심, 게으름, 재능, 열매 & 현재의 수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015.08.1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어떠한 것들을 잃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잃도록 허용한 많은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었고 너희들을 다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어.

지금은 회복의 때야. 그래, 전투가 있어. 그래, 어둠이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은혜도 증가하고 있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적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왔어.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에서의 수확의 시기에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은 시험의 시기에 있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도 헤아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너희들에게 돌아와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라. 이 세상의 시련과 손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큰 보상을 쌓아왔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 순간에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몰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손에 쟁기를 쥐고 등을 돌리고 일하라고 말하였어. 왜 많은 사람들이 시기적절한 응답이 필요한 결정들에 대해 계속 기다리면서 미루는 거야?

너희들이 '이 날에 될지, 그 날에 될지, 이번주에 될지, 그 달에 될지'를 말하는 예언자들의 소식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너희들이 일하는 것을 미룰 핑계를 제공하는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어? 내 사랑들아,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전혀. 나는 너희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너희들의 일에 전념하기를 기대해. 내가 돌아갔을 때 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좋은 복이 있어. 잘했다, 너희들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묻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예언으로 자신을 두려움으로 채우고, 그 핑계로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 되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힐 것이고 너희들은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 이것은 경고야. 심각한 경고야. 너희들은 몇 달 동안 이 목소리로 나를 믿어왔어.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믿기가 불편해? 왜 그녀에게 한 나의 말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너희들이 게으르고 너희들 앞에 놓인 힘든 일에서 물러날 핑계를 원하는 거야?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외하게 만들지 말아라. 경주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옆에 서있지 말아라.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승리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만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수확할 기회가 1년 전 보다 더 많아졌어. 악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어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리고 나는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결코 본적이 없던 투쟁, 폭력, 절망, 혼란, 단절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과의 단절, 환멸은 지금 사상 최고야. 지금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할 때야. 나의 사랑의 말들을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빛이 됨으로써.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 그 상처들을 돌봐주는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가담하지 않고 달려가 그들의 변호에 나서고 그들을 해악에서 구하는 사람.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과 자선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너희들은 뜯구름을 잡으면서 그들을 지나치고 있어?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도 나의 목숨을 바친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려고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걷고 있어?

내가 배가 고플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었어. 나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초대하였어. 내가 알몸일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어. 내가 아플때 너희들은 나를 방문해주었어. 내가 감옥에 있을때 너희들은 나에게 왔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클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끝내신 후에 저는 주님께 여쭙보았어요.

주님, 구급차들과 사이렌 소리가 증가하는 것이 CERN(유럽원자핵 공동연구소)과 관련이 있나요? 정말 심해졌어요. 제가 녹음을 할때 계속해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때문에 가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낮에는 사이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정말 비정상적이었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그것은 확실하게 관련이 있어. 너희들의 지구는 새로운 총의 죄악으로 덮혀있으며 수백만의 악마들이 그 포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왔어. 하지만 기억해라.. 그 악마들은 나의 천사들과 상대가 되지 않아. 그래, 어둠이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와 희생을 봐. 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너희들의 기도와 희생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의 기도가 오게될 심판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벼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멋진일이 될지! 이 추수는 너희들의 순종과 신실함을 증거할 거야. 비록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가장 어둡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 구석구석과 골목, 그리고 정부, 국가의 원수들까지, 이 마지막때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기도로 인해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지금 너희들을 나의 포도원에 보내서 계속 수고하게 하고 있어. 게을러지지 말고, 일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너희들의 게으름을 인식하고 회개해라. 회심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오는 길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해. 너희들이 가서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물어볼 거야. “왜 저를 위해 이것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대해 말 할 수 있어. 너희들은 기도에 들어와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줘라. 이것은 이렇게 간단해. 너희들은 단지 최상급 포도주를 담은 그릇일 뿐이야. 너희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 그것은 그들이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어느누구에게도 너희자신을 강요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다음 부드럽게 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어라. 너희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방향성의 결여, 그들의 사랑과 위안의 부족에 대한 답을. 내가 너희들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들의 안에 있어. 그릇인 너희들이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그들 위로 흘러나올 거야.

이제 나아가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멈출 준비를 하고 나의 최상급 포도주를 그들에게 부어라.